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9

"사악(四岳)에서 돌아와 예조(藝祖)의 사당에 이르러 한 마리의 소를 써서 제사를 지내고 고했다"는 구절에 대하여, '집전'은 '예기'의 '왕제'에서 "돌아와 조녜(祖禰)에 제사를 지내고 고했다"를 인용하였고, 또 정자(程子)의 설인 "단지 예조(藝祖)만을 말한 것은 높은 분을 든 것이니, 실제로 늘 모두 고한 것이다"를 인용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왕제'는 통상적으로 천자의 예를 말한 것이고,<순전>은 전적으로 순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예조(藝祖)라고 말한 것은 당시 아직 예묘(禰廟)가 없었기 때문이다. 순이 섭정한 것은 생각건대 그 뒤의 일로, 예요(禰堯)라 하면 요 임금은 여전히 천자의 지위에 있었고, 만약에 따로 사당을 세워서 예고(禰瞽)라 하였다면, 고수(瞽叟) 또한 그 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러므로 '다만 조상의 사당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사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만 당시의 실제 일을 기록한 것일 따름이다.

10

"상이전형, 호종적형(象以典刑, 怙終賊刑)"의 문장을 위에 기록하고 "유방찬극(流放竄殛)"의 죄를 아래에 이은 것은 사흉(四凶)의 죄가 사형에 까지 이르지 않아 이와 같이 처벌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였다. 이는 대벽(大辟)이라는 법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그 형벌은 쓰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형벌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면 그 죄는 사흉보다 심한 것으로 더욱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았을 터이니, 반드시 특별히 기록하였을 것이다. 지금 그러한 글이 없으니 요·순 시대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으며, 두 천자의 덕이 성대하여 집집마다 봉읍을 줄 만한 풍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벌은 형벌을 주지 않는 것으로 기약하니 백성들은 마음으로 협력한다"고 한 것이 어찌 성인이 스스로 허황되고 과장된 말을 한 것이겠는가?

11

"정월 초하루에 순이 문조(文祖)의 사당에 나가셨다"는 구절에 대해 공씨(孔氏)는 "순이 요의 상을 입어 3년을 마치고 정사에 나아가려 하였으므로 다시 문조의 사당에 이르러 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집전'에서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맹자'에 "요 임금이 돌아가시고 3년 상을 마치자 순이 남하(南河)의 남쪽으로 와서 요 임금의 아들을 피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자신에게 와서 아침 인사를 하고 또 재판을 받으려 하였다. 그런 후에 수도(首都)로 가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기에충분하다. 또한 위의 글에서 요 임금이 죽자 "백성들이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듯이 3년 복을 입었다"고 한 것이나, 그 아래 "정월 초하루"라고 쓴 것은 상을 마치고 이듬해가 되는 것이 더욱 분명하니 다른 글을 가져다 증거로 삼을 필요가 없다.

'집전'의 뜻은 '한 해라도 임금이 없을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에 "임금들은 모두 상을 당한 그 이듬해 정월에 임금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가지고 공씨의 말에 의심을 한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임금이 돌아가시면 모든 관리들이 자신의 직무를 총괄하여 총재에게 2년 동안 보고하고 명령을 듣는다 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순은 이미 요 임금이 살아 계실 때부터 섭정하였기 때문에 요 임금이 돌아가신 후 요 임금의 아들인 단주(丹朱)가 상주가 되고 순이 그대로 섭정하고 상을 마친 후에 단주에게 정권을돌려 주고 피한 것이다. 그러니 정월 초하루에 사당에 고하고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고 한다면 요 임금의 아들을 피한 것은 어느 때가 되는가? 아마도요 임금이 돌아가신 날이 12월 그믐이 아니라면, 돌아가신 지 2년 되는 대상(大祥) 뒤와 이듬해 정월 사이에 자연히 피할 만할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12

'집전'의 '우서' 서문에 "<순전> 이하로는 하 나라 사관이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우모> 제목 아래에서는 "순 임금의 사관이 이미 <요전>과 <순전>을 기술하였는데, 또 <대우모>·<고요모>·<익직>의 삼모(三謨)를 지은 것은 <요전>과 <순전>에 기재된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기때문에 또 그 임금과 신하 간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정치를 기술하여 <대우모>·<고요모>·<익직>의 3편을 만들었다"고 하는 임지기(林之奇)의 설을 취하였다.

그 의논이 옳으므로 다만 그냥 놔둘 따름이다. 그러나 <대우모>와 <고요모>는 모두 "계고(계古 : 옛 일를 생각해 보건대)"라고 하였으니, 하 나라 사관이 썼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하 나라사관이 썼으면서도 우를 '왕(王)'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우가 순 임금의조정에서 순 임금에게 계책을 진술한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비록 하 나라 사관이 쓴 것이지만 '우서(虞書)'가 되어야 한다. 하 나라 사관이 쓴 것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특별히 '대(大)'자를 보태어 <대우모>라 하여 <고요모>·<익직>과 구별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古 訓 新 鑑

▣ 입암서원유사 권 태 수

第三章 誠身

우선 당신의 인격부터 바로 잡으라.

남의 착함을 보거든 나의 착함을 찾고 남의 악함을보거든 나의 악함을 찾아야 한다.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형벌은 응보(應報) 또는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懺悔(참회)와 개선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부지런함은 값진 보배요 조심함은 곧 몸을 보호하는 符籍(부적)이다.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그를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살펴야 한다.

接物之要는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고 求之不得이면 反求諸己니라

〈明心寶鑑〉

사물(事物)에 접하는 요체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고, 행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돌이켜 자신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다.

[解說]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고, 하던 일이 잘못되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군자는 잘못을 자기에게 찾고, 소인(小人)은 잘못을 남에게 찾는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고 말씀하셨다.

남을 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나와 같이 보는 대아(大我)의 견지에서 행동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하기 싫은 것이니 남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평생 원망을 들을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존경할 것이다.

또 무슨 일이 뜻대로 안되면, 그 원인이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말지니, 나에게 무엇인가 정성스럽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세상일이란 모두가 자작자수(自作自受)라, 그 성패(成敗)의 원인이 크던 작던 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불교에서 세사(世事)를 모두 인과응보(因果應報)로 보고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군자의 태도는 활 쏘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는데 화살이 만일 과녁에 맞지 아니하면 활이나 과녁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반성하나니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잘 안될 때 남이나 환경 등을 탓하지 말고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고 또 매사에 남이나 운명을 탓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유덕군자(有德君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富潤屋이오 德潤身이라 心廣體胖하니 故로 君子는 心誠其意니라

〈大學〉

부(富)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德)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마음이 넓어지면 몸도 편안하나니 그러므로 君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

[解說]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마음을 성실하게 가지면 그 사람의 얼굴과 몸에 성실한 기색(氣色)이 배겨져 나와서, 누구라도 일견(一見)에 성실한 사람인줄 알아 볼 수 있다. 부유하면 집 안팎이 치장되여 집이 윤택해 지듯이, 사람에게는 德을 쌓아 갖추게 되면 몸과 얼굴레도 윤택이 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별고 〈36회〉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와 공업(2)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임진왜란 후에 조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몇 가지 기록된 사실만 미루어 짐작할 때에도, 충의공 권응수 장군이 나라가 전란으로 위급했을 때 이를 훌륭하게 극복한 전공(戰功)이나 일생의 업적 및 진충보국(盡忠輔國)의 의연한 모습이 확연하게 떠오르는 것 같다.

공은 명종 1년(1546 ; 병오년) 11월 26일 자시(子時)에 경상도 신녕현(新寧縣 ; 현재 경북 영천시 서반부 일대) 추곡리(楸谷里; 화산면 가상동 가래실)에서 출생하였다. 충의공의 자(字)는 중평(仲平)이고 호는 백운재(白雲齋)이다. 우리 권문의 시조 태사공으로부터 23세손이며, 고려조에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를 지내고, 사후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 정승의 반열)에 추증되었으며 상장군(上將軍)을 겸한 휘(諱) 수홍(守洪 ; '복야공파'의 파조)의 13세 후손이 충의공이다.

복야공의 독자인 금자광록대부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서 병부상서(兵部尙書 ; 국방부장관)를 겸한 휘 자여(子輿)의 12세손이고, 상서공의 셋째 아들인 중문지후(中門祉侯) 휘 윤보(允保)의 11세손이며, 지후공의 둘째 아들인 충주판관 휘 연(演)의 10세손이고. 판관공의 맏아들인 자덕대부(資德大夫 ; 고려조 종2품) 휘 식(軾)의 9세손이며, 자덕공의 맏아들로 문과에 장원급제 하여 지서주사(知瑞州事)를 지내고 전서(典書 ; 고려 충렬왕 34년 6부의 우두머리 벼슬인 상서를 고쳐 부르고, 조선 초에 6조의 판서로 고친 벼슬 이름)를 지낸 휘 시중(時中)의 8세손이고, 전서공(서주공)의 맏아들인 영동정(令同正) 휘 도(度)의 7세손이며, 개령현감(開寧縣監)을 지낸 모헌공(慕軒公) 휘 질(晊)의 6세손이고, 모헌공의 맏아들인 휘 시(偲)는 태종 11년(1411년) 문과급제하고 이조좌랑, 홍문관 교리를 지내면서 지제교로서 문장과 행의(行誼)로 이름이 있었고, 외직으로 나아가 다섯 고을의 수령을 지냈으며 성균관 직강(直講)·사예(司藝)·보문각 직각(直閣) 등을 역임한 직각공의 5세손이며, 직각공의 일곱째 아들이며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낸 휘 열(諱 列)이 곧 충의공의 고조(高祖)이다.

목사공은 호가 구의헌(九宜軒)이며 문과에 급제하고 사헌부 지평(持平)과 여러 주군(州郡)의 수령을 지냈으며 당시 학문과 절행이 두터워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았고, 안동 성야동(城也洞)으로부터 처음으로 영천의 신녕에 복거(卜居)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문집에 "구의헌집九宜軒集"이 있다. 일설에는 단종 때 광주목사로 있다가 수양대군(세조)이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정변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피신한 곳이 신녕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공의 자손들도 그 뜻을 받들어 농토를 마련하고 주경야독으로 학문에 힘쓰면서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목사공의 자손이 후일의 증직 벼슬 직함은 충의공이 현달하자 이에 따른 증직이었다. 충의공의 증조는 증 호조참의 휘는 처정(處貞)이며, 조부는 증 호조참판 휘 난(鸞)이고, 부친은 증 우찬성 능라군(綾羅君)으로 휘가 덕신(德臣)인데, 능라군의 네 아들 가운데 충의공은 장자로 태어났다.

충의공이 태어나던 날 안동의 태사묘(太師廟)에 소장되어 있던 시조 태사공의 유품인 옥피리(옥저玉笛)가 홀연히 스스로 우는 소리를 냈다. 이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훗날 공이 공업으로 현달하고 나서 일설에는 공이 태어난 것을 징험한 것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공이 5-6세가 되면서부터 자태가 수려하고 활달하고 기개가 높고 곧아서 남에게 함부로 구부리기를 싫어하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비범한 아이로 알았다. 8세 때에 뽕나무로 활을 만들어 노는데 쏘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명중하였다.

충의공이 10세 때인 명종10년(1555;을묘년) 신녕현 지곡(知谷)의 동산(桐山) 아래 송괴정리(松槐亭里)로 이사를 갔다. 그 해 5월(다른 기록에는 다음 해인 병진년인 1556년으로 나온다) 남쪽에서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후일에 훌륭한 재상(영의정)이 되는 이준경(李浚慶, 1499-1572, 호는 동고東皐)이 병조판서와 형조판서를 지내고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전라도 도순찰사(都巡察使)를 맡아 출정하여, 그 형인 전주부윤 이윤경(李潤慶, 1498-1562, 호는 숭덕재崇德齋, 뒤에 병조판서)과 함께 영암성 등에서 대거 70여 척을 몰고 쳐들어 온 왜적들을 크게 무찔러 변란(變亂)을 막았다. 이준경이 개선하는 길에 신녕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를 구경하고자 충의공이 아이들과 함께 나갔는데, 이 때 이준경이 공을 보더니 크게 경탄하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참으로 기이하도다. 장차 40년 뒤에 동남쪽에서부터 나라의 큰 변란을 당할 터인데, 능히 이 난을 구제할 자가 이 아이가 아닐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

충의공 18세 때(명종18년;1563) 부인으로 선비 안도지(安道之)의 딸 순흥 안씨를 맞이하였고, 33세 때(선조11년;1578) 측실로부터 아들 적(迪)을 얻었다. 그해 11월에 부친상과 12월에 모친 이씨(李氏)의 상을 당해 빈소(殯所;악실堊室)에서 자는데, 꿈에 나타난 이가 뒷산의 장지를 가리켜 주어, 그곳의 좌우 양혈(兩穴)에 부모의 묘소로 정하고 장사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기로회(耆老會) 와 상궁

기로회장 권 정 택

세종 126권, 31년(1449 기사 / 명 정통(正統) 14년) 12월 10일(병진) 1번째 기사 종친 문무 2품 이상 등의 관원에게 사연하다.

종친은 시어소(時御所)에서, 문·무 2품 이상은 의정부에서, 3품 당상관은 예조에서, 기로(耆老)와 재추(宰樞)는 기로소(耆老所)에서 사연(賜宴)하였다. 또 승정원에서 사연할새 내연(內宴)의 노래하는 기생과 악공(樂工)을 내보내어 취풍형(醉?亨)·여민락(與民樂)·치화평(致和平) 등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대들에게 신악(新樂)을 내리니 마땅히 마음껏 즐기라." 하였다. 또 조금 뒤에 수양 대군(首陽大君)·의창군(義昌君)·수춘군(壽春君) 에게 명하여 술을 권하게 하며 말하기를, "옛날 우리 태조께서는 의안군(義安君) 에게 명하여 여러 승지(承旨) 에게 술을 권하고, 태종께서는 효령군(孝寧君) 과 나에게 명하여 여러 대언(代言) 에게 술을 권하게 하셨다. 오늘의 기쁜 경사를 비할 데가 없어서, 왕자(王子)에게 명하여 가서 술을 권하게 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마음껏 즐김이 옳겠다."하니, 밤을 새워서야 그만두었다.

기로연(耆老宴) 조선왕조실록에 기로연(耆老宴)에 대한 자료는 원문 23건, 국역 23건이 등재되어 있고 처음 등재는 세조 17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9월 9일(무자) 1번째 기사 보제원에서 기로 연을 베풀다, 라고 되어있다.

戊子/設耆老宴于 普濟院 , 命左承旨 李克堪 齎宣?往賜之。

기로연(耆老宴)을 보제원(普濟院) 에서 베풀고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 에게 명하여 선온(宣?)을 가지고 가서 하사(下賜)하게 하였다.

주(註)-기로연(耆老宴) : 늙은 신하를 접대하는 잔치

주(註)-보제원(普濟院 : 서울특별시 제23호),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48-5앞, 역할 : 조선시대(1393~1895)에 여행자에 대한 무료숙박과 병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던 구휼기관

보제원에 대한 역사적 고증 기록을 살펴보면(世宗實錄 篇) "한성부 동서에 보제원(普濟院)과 홍제원(洪濟院)을 설치하고, 기민(飢民)의 진제장(賑濟場)으로 사용하고자 토우(土宇) 2칸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기민은 날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는 병자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려니 질병의 전염과 병사(病死)가 우려되어 선공감(繕工鑑)에 명(命)하여 별도로 원사(院舍)를 건립토록 하고 각 원사에 의원을 두어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으며 무의자(無依者)는 제용감(濟用鑑)에 명(命)하여 의복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그 후 보제원(普濟院), 동활원(東活院), 홍제원(洪濟院), 서활원(西活院)에 기민(飢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동활원, 서활원 두 곳에 의원을 더 늘려 배치하여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리고 기로 연에서는 궁궐의 임금과 왕비를 모시는 궁녀와 상궁 궁중 음식에 관해서 기탄없이 회의를 하였다.

궁녀와 상궁 궁중음식

1) 궁녀의 직위와 명칭

궁녀는 왕의 사생활이 영위되는 구중궁궐(九重宮闕) 깊숙한 곳에서 의식주(衣食住)에 사역(使役)되는 여성들이며, 공적인 제향(祭享).축의(祝儀) 등에도 관련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여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궁녀는 정5품 상궁(尙宮)직을 최고로 하여 최하 4, 5세의 어린견습 나인(아기나인)까지 있으며 각기 소속된 처소. 직분.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다양한 궁녀의 명칭은 의식(儀式) 때 직무를 분장(分掌)할 때에 쓰이고 평상시에는 단지 '상궁' '내인'의 두 종류로 크게 나뉜다.

가. 상궁

상궁은 직첩을 받으면 그날부터는 머리에 첩지(머리 가르마 가운데에 장식하는 것)를 달게 된다. 상궁이 되기 전은 항아(姮娥,嫦娥; 달 속에 있는 선녀)님이라 부르고 상궁이 되면 비로소 마마님이라 부르고 대접받는다. 상궁 첩지를 받으면 궁 안에 방을 하나씩 주어 따로 세간을 내준다. 따로 밥 짓고 빨래하는 하녀를 두고 살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각방서리라 한다.

▶ 제조(提調)상궁

제조상궁은 일명 큰 방 상궁이라고 하여 수백 명의 궁녀 중 으뜸이 되는 상궁으로 권세와 권위가 대단하여 남자관리로 치면 영의정의 지위와 같다고 하겠다. 제조상궁은 단 한사람이며, 자격은 궁녀 중에 연조가 오래되고 위품이 있고 인격이 높아야 한다. 학식이 많고 수많은 궁녀를 통솔할 수 있는 영도력이 있어야 하고 인물도 출중하여야 한다. 제조상궁의 임무는 대전 어명을 받들고 내전의 대소 치산(治産)을 주관한다. 제조상궁에 대한 음식대접은 임금님의 수라상과 가짓수를 같게 하고 분량만 적게 한다. 그리고 큰방상궁이 궁궐을 출입할 때는 세수간 나인과 비자(婢子)가 따라 다닌다.

▶ 부제조(副提調)상궁

부제조상궁은 제조상궁의 다음 자리로 일명 아랫고(阿里庫,下庫) 상궁이라고도 하며 제조상궁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를 이어간다. 보석과 의식주에 걸친 왕의 귀중품은 물론 수라에 쓰이는 반상기용인 은기(銀器), 자기(磁器) 및 유기(鍮器)와 비단 등이 있는 아랫고간의 물품들의 출납은 부 제조 상궁의 담당이다.

▶ 대령(待令)상궁

대령상궁은 일명 지밀상궁이라고 한다. 항시 왕의 곁에서 어명(御命)을 받드는 자세로 대기하고 있다.

▶ 보모(保姆)상궁

보모상궁은 왕자녀의 양육을 맡는 내인들 중의 총책임자이다. 동궁에 두 명, 그 밖의 궁에는 한 명씩 있다. 왕 자녀들은 어릴 때에 이들을 '아지(阿只)'라고 부른다.

▶ 시녀(侍女)상궁

시녀상궁은 궁중의 지밀에서 상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행한다. 서적 등을 관장하고 글을 낭독하고 글의 정사(淨寫)를 맡고, 대소잔치의 내연에 좌우 찬례(贊禮), 전도(前導), 승인(承引), 시위(侍衛) 등을 거행하고, 각 종실(宗室), 외척(外戚)들의 집에 내리는 하사품에 관한 업무를 관장, 규찰(糾察)하고 그릇과 기타를 다스리는 일 외에 대소사우(祠宇; 따로 세운 사당집)를 총관하여 곡읍(哭泣; 소리 내어 슬피 움)도 하며, 왕비와 왕대비의 특사로 그 본댁(本宅;친정)에 어명을 받들고 나가기도 한다.

▶ 일반상궁

이상의 상궁들 외에 뚜렷이 직함이 붙지 않은 일반상궁들이 각 처소마다 7, 8명씩 있어서 그 아래의 내인들을 총괄하고 처소마다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기도 한다. 상궁들은 존칭으로 '마마님'이라 부르는데 민가에서는 대가 댁의 소실(小室)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다.

〈다음호에 계속〉